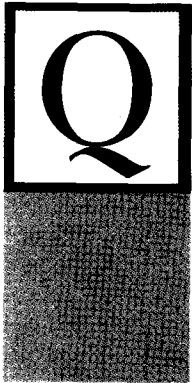


딸아이가 성폭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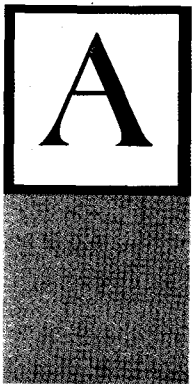


김현희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장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길에 낯선 아저씨가 다가와서 “저기 가서 ○○엄마 좀 불러줄래” 라고 했습니다. 어린 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아저씨를 도와주기 위해 따라갔는데 딸의 생각에도 너무 많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나 더 가야 돼나요”하고 물어 보았대요.

낯선 아저씨는 조금은 강압적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빨리 따라와” 하여 딸아이는 무서워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따라 갔는데 결국 인적이 드문 동네 야산으로 끌려가 성폭력을 당했어요. 막상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딸에게 엄마로서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 두렵고 너무 막막해요.



어머님의 소중한 자녀가 성폭력을 당하여 굉장히 충격이 크고 마음도 아프시겠네요. 어린이 성폭력은 인간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마음 기짐

먼저, 피해의 결과를 놓고 “왜 따라갔니? 왜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니?” 등

의 말로 따님을 책망하거나 야단치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삼가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하는 한마디가 따님에게 큰 위안이 될거예요.

그리고 산부인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응급 조치나 외상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외상이 있을 때 대단히 큰 일인양 확대해석하기보다는 “단지 성기에 상처를 입었구나”라며 따님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신체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도록 하세요.

만약 따님이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는 “아무 병이 없어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의사선생님한테 한번 보이는 거야”라고 타일러서 병원에 데리고 가세요.

사후처리 방법

그 당시 따님이 입었던 속옷은 경찰에 신고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잘 보관해 두세요.

“ 왜 따라갔니? 왜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았니? 등의 말로 아이를 야단치기 보다는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라며 안심 시켜주세요 〰〰

또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충격적이어서 사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상담소에 찾아가 상담을 하세요. 경찰 신고나 법적인 대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 및 예방수칙

따님 앞에서 지나치게 격정하시면 따님의 입장에서 “나 때문에 우리집에 큰 일이 발생했구나”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와 병행하여 소아정신과에 데리고 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고 아이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거나 불안과 두려움 증세를 보이는지 잘 관찰하여 정신적인 상처에 대한 치료까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따님에게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서 동행을 요구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알려주시고 아는 사람이



나 모르는 사람이 불쾌하게 느껴지는 신체접촉을 할 때 단호하게 “안돼요,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꼭 확인후 문을 열어 주고 공공화장실에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친구나 어른과 함께 가도록 하는 것 등의 예방 수칙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PPFK